



하계 U대회 현지 실사 준비 마친 박광태 광주시장

“대대적 환영 만전… 시민 열망 보여 달라”

박광태 광주시장은 1~5일 실시되는 2013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이하 U대회) 개최지 선정을 위한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의 광주 현지 실사와 관련 “실사단이 광주에 머무는 날씨동안 공항부터 속도, 경기장 등 실사 현장 곳곳에 시민 모두가 나와서 뜨거운 유치 열망과 의지를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박 시장은 지난달 30일 광주일보와 인터뷰에서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 실사단이 가장 많은 점수를 부여하는 부분은 바로 시민들이 얼마나 유니버시아드 대회 개최를 열망하는가”이며 이같이 강조했다.

박 시장은 지난해 말 광주가 2013 하계U대회 국내 유치 도시로 최종 확정된 직후부터 지난 4개월동안 대회 유치를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왔다. 민선 4기 ‘박광태호’(號)의 명운’을 걸었다는 말까지 나을 정도다. 지난 2월 13일 벨기에 브뤼셀에 있는 FISU 사무국에 유치 신청서를 공식 제출한 이후부터는 투표권을 갖고 있는 미국과 유럽, 남미, 중동, 아프리카 등 10여개국을 훤히 감행하며 체육계 인사들을 만나 광주 유치의 당위성을 역설하고 지지를 요청했다. 테러가 빈발하는 알제리에서는 보안검색에 시달려야 했고, 중국 방문 후 지난달 29일 귀국 때는 비행기가 안개 때문에 회항하고, 다음날은 기체 결함으로 지체되는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다.

최적의 개최지 광주” 호소

— 2013 하계U대회 개최 후보지에 대한 FISU 실사가 임박했다. 준비상황을 소개해달라.

▲현지 실사는 광주가 과연 2013 하계U대회를 치를 능력이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스페인 비고에 이어 광주를 찾는 실사단은 러시아 카잔까지 3개 후보도시를 모두 방문한 뒤 객관적인 순위를 담은 보고서를 작성해 집행위원회들에게 제공한다. 이 보고서가 개최지 선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처럼 실사의 중요성이 큰 만큼 실사위원들이 입국하는 순간부터 출국 때까지 국빈급에 준하는 예우와 완벽한 실사 진행으로 감동을 선사하는 실사전략과 대대적인 시민환영계획을 마련했다. 7개 지원반으로 구성된 종합준비단을 가동해 매일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30일에는 주요 이동로에 대한 현장 점검을 마쳤다. 스포츠시설 확충과



친환경 선수촌 건설 등 청사진을 제시해 ‘최적의 개최지는 광주’라는 사실을 호소력 있게 전달할 계획이다.

— 실사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인가.

▲시민들의 유치 열망과 의지다. 2011년 대회 유치에 성공한 중국 선전 역시 시민들의 강렬한 유치 열망과 의지가 집행위원회의 표심을 움직여 러시아 카잔을 근소하게 차이로 따돌린 것이다. 따라서 우리 광주도 실사단을 ‘내집에 온 귀한 손님’으로 맞아 시민들의 환대에 감동을 받은 실사단이 광주의 손을 들어줄 수 있도록 환영대열에 동참해주시길 당부드린다. 광주 특유의 열정과 결집력을 보여준다면 집행위원회들은 주저없이 광주를 선택할 것이다.

— 지난 2월부터 세계 각국을 돌며 유치활동을 펴왔다. 활동 내용과 각국의 반응을 소개해달라. 현재 판세를 어떻게 진단하는가.

▲개최지 선정은 투표권을 갖고 있는 27명의 FISU 집행위원회에게 달려 있다. 따라서 시와 유치위는 지난 2월

부터 미국과 유럽, 남미, 중국, 중동, 아프리카 등 10여개국을 철새없이 돌며 체육계 인사들을 만나 광주 유치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지지를 요청했다. 집행위원회들은 5·18 민주화운동을 통해 아시아 각국의 민주화와 인권 신장에 기여한 광주의 저력과 시민들의 평화정신에 높은 관심을 보였고 광주 정신과 U대회 정신이 일치한다는 점에도 우호적인 반응을 보였다. 현재까지 각국 집행위원회들의 반응을 점검한 결과 이미 5부 능선을 넘어섰고,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한다면 반드시 유치에 성공할 것으로 확신한다.

— U대회 유치 과정에서 어려움이나 변수가 있다면.

▲2013년 대회 유치를 신청한 도시는 광주를 비롯 러시아 카잔과 스페인 비고 등 3개 도시다. 특히 러시아 카잔은 이번 도전이 벌써 세 번째이고 전 국가적으로 유치활동을 폐고 있어 결코 만만한 상태가 아니다. 러시아와 같은 유럽 대륙의 집행위원회는 13명에 달하는데다 ‘세 번째 도전’이라는 점도 동정표를 자극할 수 있다. 하지만 카잔은 광주에 비해 도시기반 시설이 미흡하고 스포츠 인프라도 열악해 번번이 고배를 마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반해 광주는 민주·인권·평화도시로서 상장성과 풍부한 국제경기 대회 개최 경험, 월드컵경기장 등 세계적 수준의 스포츠 인프라가 강력한 경쟁력이다. 지난 3월 광주를 방문한 조지 키리안 집행위원장도 경기장 시설과 접근성, 인프라에

“5부 능선 넘어… 남은 기간 최선”

대단히 만족해했다.

— U대회 유치에 전력 투구하는 깊이은.

▲광주가 세계 속의 1등 도시로 나아가려면 강력한 동력이 필요하다. 하계U대회는 세계 170여개국에서 1만여 명이 참가하는 국제스포츠대회인 만큼 국가지원을 통해 도시기반시설과 스포츠 인프라가 대거 확충돼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 생산유발효과는 9천500억원, 부가가치는 4천500억원, 고용창출은 3만여명에 달한다. 뿐만 아니라 광주의 국제적 위상을 한 단계 높여 외국기업의 투자유치는 물론 국내외 관광객을 흡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특히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면 향후 아시안게임과 올림픽 등 대형 국제스포츠이벤트를 유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정호석기자 who@kwangju.co.kr

광주 방문한 하계 U대회 실사단 6인은?

단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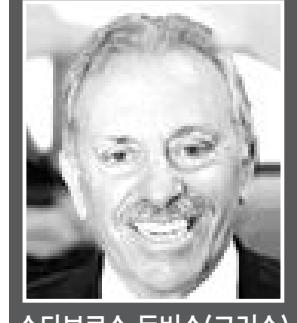
스테판 버그(스웨덴)

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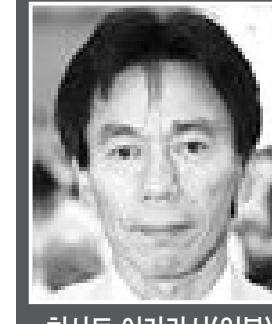
말룸베트 라레트(남아공)

위원



스타브로스 두비스(그리스)

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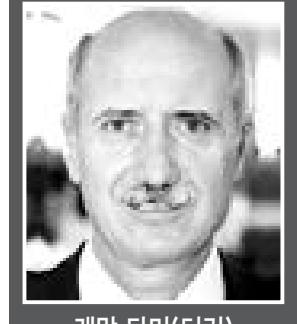
히사토 이가라시(일본)

위원



시니샤 야초니즈(세르비아)

위원



케말 타머(터키)

이들의 눈에 달렸다

FISU 집행위원회들 … 스포츠계에서 잔뼈 굵은 체육 행정가

1일 광주를 방문하는 실사단은 스웨덴, 남아프리카공화국, 그리스, 세르비아, 터키, 일본 등 6개국 인사들로 구성돼 있다. 모두 FISU 집행위원회이기도 한 이들은 각국 스포츠계에서 잔뼈가 굵은 체육 행정가들이다.

실사단장인 스테판 버그(Stefan Bergh·46·스웨덴)는 FISU 집행위원회 부위원장장을 겸하고 있다. 울랄라 대학 교육학부 학장을 거쳐 지난 1988년부터 스웨덴 스포츠 연맹 스포츠 정책부장을 지내면서 스웨덴 체육정책을 총괄하고 있다.

말룸베트 라레트(Malumbete Michael Ralethe·41·남아공)는 FISU 집행위원회 수석위원으로서 약학을 전공한 학구파. 남아공 대학스포츠연맹 회장과 올림픽의장을 지냈다.

케말 타머(Kemal Tamer·54·터키)는 터키 ‘가지’ 대학 체육학 교수이며 터키 대학 스포츠연맹 회장, 국가 스포츠 교육 및 리서치 센터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운영기자 penfoot@kwangju.co.kr

2009년 공무원시험 상한 응시연령제한 폐지로 공무원 시험 열풍! 귀하를 광주 “한빛고시학원”에서 합격을 책임지겠습니다.

9급 공무원시험 [국가직] 합격! 최강퍼펙트강좌

www.hanbitgosi.co.kr
들어오시면 전국최고의 시설과
최다합격자 최강의 강사진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금이론반
2개월 완성

금문제풀이
2개월 완성(이론+문제)

금이론반
2개월 완성

금문제풀이
4주완성

전공단과반개설
2개월 완성

법원·검찰직
2개월 완성

소방·기술직
2개월 완성
교정·보건·사회복지

농업직
농업연구사·농촌지도사
양승준·특별초빙 특강

수강자 전원 반복학습 동영상 강의를 지원함으로써 100% 학습증대와 경제적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www.hanbitgosi.co.kr

예비공무원 사관학교



한빛
공무원학원
전대후문 북구청앞 234-0234



주택관리사

★ 2010년 ★
의무채용
★ 실시 확정 ★

4월 무료
강의 실시

주택관리사(보) 11회

9월 7일 시험 시행

지금 바로 기회입니다!!

현대고시학원

(광주동부경찰서 9층) 062) 222-6790, 232-1088

